



젊은 무용인들 몸짓 언어로 파도 같은 무대

도립무용단 8명 단원
직접 안무 맡은 여덟 편
6월과 8월 잇따라 공연
제주발 춤 드문 무대에
새로운 활력 되길 기대



김혜령 이승현 김제인 현혜연 강현정 김화영 남기홍 고범성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근래 제주 밖 단체를 초청해 춤 공연을 이어가는 동안 정작 제주의 유일한 국립무용단인 제주도립무용단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진흥원의 문예회관은 무용이 부재한 공간이었다. 그 점에 아쉬움을 느꼈을 관객들이라면 이번 무대가 반갑겠다. 도립무용단이 새로운 기획 공연으로 무용단원들이 안무하고 출연하는 작품을 이 계절의 분위기에 맞춰 뜨겁게 내놓는다.

이 공연에 붙여진 제목을 영문 약자대로 읽으면 파도(PADO, Play Art Dance On)가 된다. 레퍼토리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무대로 제주



김혜령 김화영 남기홍 고범성

무용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도립무용단의 젊은 무용인들이 안무를 맡아 그 이름처럼 제주 무용계를 움직일 파도를 몰고 온다.

현재 예정된 '파도' 기획 공연은 두 차례다. 6월 26일 오후 5시, 8월 21일 오후 5시 문예회관 대극장으로

정해졌다. 안무자는 모두 8명이다. 제주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무대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몸짓 언어로 그려낸 작품까지 8인 8색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6월 무대에선 상처와 념세를 열섯

말로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낸 김혜령의 '헝거(HUNGER)', 존재에 대한 성찰과 달아있는 이승현의 '인간 연습', 제주 근현대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김제인의 '왕이자랑', 내면과 마주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현혜연의 '심혼'S'가 준비됐다. 8월 무대에는 차(茶)를 모티브로 창작한 강현정의 '백(百), 백(白)', 꽃피는 생(生)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본 김화영의 '떨어질 락(落)', 제주 돌담에서 영감을 얻은 남기홍의 '틈-바람길', 삼별초와 아기업개 전설을 무용예술의 상상력으로 풀어낸 고범성의 '아기업개의 기억'이 펼쳐진다.

부재호 도문화예술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계에 활력을 보낼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혜령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안무자는 "이번 단원 창작 프로젝트는 콘텐츠 발굴을 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만의 춤 언어를 찾고 새로운 안무기를 탄생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응원을 부탁했다. 전선희기자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살아있는 작품'.

저지문화마을에 몰입형 영상 공간

제주현대미술관 공모 선정
공공수장고 다목적실 활용
AR 도슨트 아트이음길도

숲속 미술관인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이 이번엔 디지털 미술관으로 또 한 번 변신을 꾀한다. 몰입형 실감 콘텐츠와 AR 도슨트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과 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제주현대미술관 입구 맞은 편에 들어선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다목적실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연계해 디지털 콘텐츠에 기반해 동적인 방식으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사업에 따라 공공수장고 다목적실에는 몰입형 영상 공간이 구축됐다. 이곳에서는 '제주의 자연, 현대미술을 품다'란 주제 아래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꾸민 '살아있는 작품',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김시연·박서은 작가의 '숲이'라는 이름에 문헌 나무' 두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관람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정보와 추천 동선 등을 체험해보는 AR 도슨트 콘텐츠인 '아트이음길'도 가동된다. 저지 일대를 걸으며 AR 기술을 이용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시범 운영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7월 27일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립미술관에 '그림책오름' 생겼다

유휴 공간 리모델링 조성
어린이용 미술 서적 구비
세계 팝업북도 소개 예정

어린이들이 즐겨 보는 그림책과 제주를 상징하는 오름을 합성해 아이들이 그림책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미술관을 가깝게 여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이곳에는 어린이용 미술 서적 약 500권이 비치됐다. 세계 유명 미술관 소개, 국내외 유명 미술 작가들의 일대기, 미술관 전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다룬 그림책 등 미술 관련 지식을 익힐 수 있는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



도립미술관 내 아이들을 위한 공간 '그림책오름'.

을 자극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팝업북도 소개하기로 했다. 팝업북은 6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이 공간은 도립미술관 방문객이면 전시 관람권 구매와 상관없이 누구

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시시간대 5명까지만 입장 가능하다.

미술관 측은 "도립미술관을 찾는 사람들 상당수가 가족 단위 관람객인 점을 고려해 어린이들에게도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북돋워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 추진됐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미술 관련 서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어린이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서적을 축적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했다. 문의 710-4262. 전선희기자

4·3의 시선으로 평화·통일 미래 전망

16회 제주포럼 4·3세션
제주4·3연구소 주관 맡아

제주4·3을 세계의 시선으로 보고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16회 제주포럼에 맞춰 이달 25일 오후 1시 30분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4·3세션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4·3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4·3세션은 '4·3과 세계 냉전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기획됐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분쟁과 4·3 당시 발생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유사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강연과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날 기조 강연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정근식 위원

장이다. 정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현재 우리는 과거의 미소냉전을 대체하는 미중 냉냉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의 선택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며 "제도적 노력만으로 비평화의 구조를 해체하고, 냉냉전 질서로의 재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안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주제 발표는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이 맡는다. 박태균 교수

는 전쟁 중 민간인의 죽음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해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이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짚어 예정이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를 좌장으로 마스다 하지무 국립 싱가포르대 교수,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션을 포함 올해 제주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반인 참가가 제한된다. 전 세션은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제주학아카이브 전면 개편

제주학연구센터가 최근 '제주학아카이브' 누리집 개편 작업을 마치고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메뉴를 도출해 메인 좌측에 아이콘으로 배치했다. 제주학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검색 시스템도 개선했다. 분류체계를 학문분야별, 매체별로 설정하고 하위 분류 단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제주학연구센터 측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중심이 되는 제주학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성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제주학, 제주문화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귀포 해안 야경 투어 운영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 '2021 서귀포문화재야행' 사업으로 7월 30~31일 펼쳐지는 '신(神)과 함께하는 해상 투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문화재야행 '야로' 체험 행사로 기획된 해상 투어는 참가자들이 어선에 나눠 타서 서귀포 해안의 야경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서귀포항을 출발해 이중섭 화가가 즐겨 찾았다는 자구리해안을 거쳐 정방폭포, 문섬, 외돌개 등을 본 뒤 서귀포항으로 돌아오는 약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구글폼(https://forms.gle/2cGf3kpYM552PNE7A)으로 선착순 150명을 접수하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 문의 070-8990-9999.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